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햄핑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석양이 지는 런던 타워교 사이로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마크가 보이고 있다. 런던시는 이번 2012 올림픽을 위해 오륜마크를 설치했다.

/연합뉴스

‘하나의 삶’ 하나의 축제

한국 선수단 374명 ‘금10-톱10’ 목표 ... 참가국 모두 女선수 출전 올림픽 새 역사

올림픽 성화가 이제 열흘 후면 64년 만에 다시 런던 밤하늘을 밝힌다.

제30회 런던하계올림픽이 한국시간으로 7월28일 오전 5시(현지시각 7월27일 오후 9시) 영국 런던 북동부 리버풀의 올림픽스타디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17일간의 열전이 끝나면 8월29일부터 9월 9일까지 장애인 스포츠 축제인 제14회 패럴림픽이 감동과 환희를 이어간다.

런던올림픽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대회 역사를 새로 썼다.

우선 이번 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역사상 최초로 한 도시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올림픽이다.

런던은 1908년(제4회)과 1948년(제14회)에도 올림픽을 개최했다.

‘하나의 삶(Live As One)’을 모토로 내건 이번 대회는 모든 참가국에서 여성 선수가 출전하는 사상 첫 대회로도 역사에 남는다.

그동안 여성 선수를 내보내지 않았던 카타르, 브루나이에 이어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무여곡절 끝에 여성 선수를 출전시키기로 하면서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

한국도 이번 올림픽을 맞는 감회가 남다르다.

우리 선수단의 이번 대회 콘셉트는 ‘From London To London(1948-2012·런던에서

런던으로)’이다.

1948년에 열린 런던올림픽은 한국이 광복 이후 처음으로 태극기를 앞세워 입장했던 대회다.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었지만 7개 종목에 선수 51명과 지도자 및 임원 19명 등 총 70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전 세계에 ‘KOREA’가 독립국임을 알렸다.

이 대회에서 한국은 역대 마일급의 김성집과 복싱 플라이급의 한수안이 동메달을 수확해 59개 참가국 중 32위에 올랐다.

64년 만에 다시 런던 땅을 밟는 한국 선수단은 22개 종목의 선수 245명을 포함한 총 374명으로 선수단을 꾸렸다.

선수 수는 210명이 출전한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이후 28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게다가 농구, 테니스, 승마, 카누 종목은 출전권을 따지 못했다.

하지만 6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국은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금메달 10개 이상을 따서 3회 연속 세계 10위 안에 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올림픽 첫 참가 이후 64년 만에 같은 곳에서 열리는 런던 대회에서는 한국 통산 100번째 올림픽 금메달의 주인공이 탄생할 전망이다.

1976년 몬트리올 대회에서 레슬링의 양정모가 판해방 이후 첫 금메달을 시작으로 한국은 2010 밴쿠버 동계 올림픽까지 14차례의 동·하계올림픽에서 모두 91개의 금메달을 챙겼다.

이번 대회 목표인 금메달 10개를 획득하면 통산 100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이 탄생한다.

대회 막판인 8월8일부터 진행되는 ‘국기(國技)’ 태권도에서 영광의 주인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선수단 본단이 20일 장도에 오르는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스포츠 수혜국에서 원조국으로 탈바꿈했음을 알리는 외교활동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70여 세계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런던 올림픽에는 26개 종목에 총 302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비교해 야구와 소프트볼이 빠졌지만 복싱에서 여자 세 체

급이 추가되고 남자 페데급이 제외돼 세부 종목은 302개로 같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203개국에서 1만 500여 명의 선수와 5000여 명의 임원, 2만여 명의 취재진이 참여한다.

런던올림픽의 심장부인 올림픽공원은 쓰레기 매립장이던 런던 북동부의 ‘리 벨리(Lea Valley)’에 조성됐다.

축구장 357개 크기인 2.5km 부지의 올림픽 공원에는 개·폐회식 및 육상 경기가 펼쳐질 8만 석 규모의 올림픽스타디움을 중심으로 수영장, 사이클, 펜싱, 하키, 농구, 핸드볼 경기장 등이 들어섰다.

1만7000 명을 수용하는 선수촌과 전 세계 취재진의 작업 공간인 국제방송센터(IBC)와 메인프레스센터(MPC)도 올림픽공원에 자리 잡았다.

축구, 카누, 사격, 테니스, 산악자전거, 도로사이클 등은 기존 경기장 시설을 활용해 치러진다.

런던의 자랑인 하이드파크에서는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열리고 근위병 교대식으로 유명한 호스 가즈 광장에는 비치발리볼 경기장이 임시로 들어섰다.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LOCOG)는 지난 12일 올림픽 선수촌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연합뉴스

코리아 위해 뛰는 외국인들

박태환 코치 마이클 볼

축구대표팀 코치 이케다

장대높이뛰기 아르카디



마이클 볼



이케다 세이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에 힘을 보태는 외국인 지도자가 있다.

‘마린보이’ 박태환(23·SK텔레콤)의 ‘사부’인 호주 출신 마이클 볼(50), 육상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최윤희(26·SH공사)의 비상을 지켜볼 시크비라 아르카디(52·우크라이나), 8강 진출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의 이케다 세이코(53·일본) 코치다.

2010년 1월부터 박태환과 인연을 시작한 볼 코치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제자 스테파니 라이스를 3관왕으로 키우고 그해 ‘올해의 호주 수영 코치상’을 받은 세계적인 명장이다.

지도자로 25년째 활약 중인 그는 최고 수영 지도자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플래티넘 라이선스’도 갖고 있다.

베이징올림픽에서 자유형 400m 금메달, 자유형 200m에서 은메달을 따며 세계를 놀라게 한 박태환은 그러나 이듬해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다. 2009년 로마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출전한 세 종목에서 모두 결승 진출에 실패하며 큰 좌절을 맛본 것이다. 박태환은 볼 코치를 만나고서 ‘로마 참패’의 기억을 완전히 씻어냈다.

2010년 1월부터 한국 육상 선수들을 지도한 아르카디 코치는 남자 장대높이뛰기에서 불멸의 기록(6m14)을 세운 ‘인간새’ 세르게이 부브카(49)의 개인 코치이자 여

자 지존 엘레나 이신바예바(30·러시아)를 키워낸 비탈리 페트코프 코치의 제자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수석부회장인 부브카의 권유로 한국땅을 밟은 그는 20년 이상 술한 제자를 키워낸 노하우를 전수하며 최윤희를 다시 중심에 세웠다.

‘한물갔다’는 평가를 들었던 최윤희는 기초 체력을 키우고 기본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마해 지난 5월 종별대회에서 한국기록을 4m41로 높였다.

축구대표팀의 이케다 코치는 지난해 3월 순전히 홍명보 감독에게 대표로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고 말했다.

일본 축구 최고의 피지컬 코치로 이름을 날린 그는 2007년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와 계약하면서 한국 축구에 입문했다.

그는 2009년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대회를 준비하던 홍 감독과 운명적으로 만났다. 이케다 코치는 홍 감독을 보좌해 한국을 8강으로 이끌었고 올림픽 대표팀에서 다시 한술을 떠게 됐다.

이달 초 대표팀 체력테스트 때 이케다 코치가 지시한 ‘공포의 왕복 달리기’는 선수들 사이에서 악명 높다.

/연합뉴스

손연재 실수 줄여야 ‘톱 10’

5위권 이하 ‘춘추전국’

‘아재’ 하면 순위 급락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런던올림픽 리허설을 마친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18·세종고)가 남은 기간에 결정적인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린다.

손연재는 15일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끝난 국제체조연맹(FIG) 월드컵 대회 개인종합에서 후프(28.050점)-볼(26.300점)-곤봉(27.250점)-리본(28.125점) 4개 종목 합계 109.725점을 받아 전체 26명의 선수 중 9위에 올랐다.

또 후프와 리본에서는 결선에 진출해 각각 6위와 7위로 대회를 마쳤다.

손연재는 올림픽에서 선보일 화려한 레오타드를 입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후프와 리본 종목에서는 수구(기구)와 하나가 된 우아한 몸짓으로 매끄러운 연기

를 펼쳐 많은 박수를 받았다.

두 종목에서 28점대를 확보하면서 올림픽 결선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도 드러났다.

특히 이번 대회 볼 종목에서 하늘로 올린 볼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실수로 28점대를 얻는 데 실패했다.

현지에서 손연재를 뒷바라지한 IB 스포츠의 문대훈 씨는 “연재를 지도 중인 엘레나 리프르도바 코치는 연재가 공을 하늘로 띄운 뒤 언제 받아야 할지 망설임 탓에 떨어

어지는 공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며 “순간의 실수가 순위 결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브게니야 카나예바·알렉산드라 메르쿨로바(러시아), 멜리티나 스타니오타·류보 차르카시나(벨라루스) 등 상위권 선수들과 손연재의 점수 격차는 2~8점이었다.

5위권 밑으로는 사실상 ‘춘추전국’ 양상을 띠고 있어 어느 한 종목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나옴이면 순위가 급락할 수 있다.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올림픽 결선 진출에 도전하는 손연재는 이런 점을 잘 알기 때문에 결선 진출 마지막노선인 10위 이내에 안정적으로 들 수 있도록 예상치 못한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연합뉴스



금메달 위해 과학자들도 뛰다

심리학·역학·생리학자

사격·체조 등 동행 지원

런던 올림픽 개막이 임박하면서 태극전사들의 메달 사냥 프로젝트를 뒷받침해온 스포츠 과학자들도 비상태세에 들어갔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은 금메달 후보들의 과학적인 훈련을 도와온 전문가들을 런던 현지로 파견한다.

김병현(심리학), 송주호(생리학), 김광준·문영진·김태완(이상 역학) 박사는 런던에서 사격, 체조, 복싱, 역도, 펜싱 선수들을 맡아 집중 지원에 나선다.

심리학, 생리학, 역학(力學) 전문가인 이들은 5개 종목을 위해 구성된 지원팀을 중심으로 활동하지만 필요에 따라 다른 선수들에게도 긴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김영숙 박사는 대한양궁협회와 동행

하고 수영을 담당하는 정진욱 박사는 개인 자격으로 현지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이들이 런던에서 풀어야 할 첫 과제는 시차·환경의 변화로 선수들의 상태가 악화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연구원은 현지 기후, 경기장 기상과 분위기, 경기 일정, 선수의 생리적 특성 등이 종합적으로 경기력에 미칠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시차를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훈련 프로그램과 컨디션 회복을 위한 식단 등을 선수별로 마련했다. 실전이 임박하면 컨디션 조절 등 생리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제시하는 역학 쪽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심리학적인 지원은 상시로 이뤄진다. 연구원은 개별 선수들의 심리적 감정과 약점을 진단해 자신감을 끌어올리고 불안감을 없애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연합뉴스